

광주 도심, 과도한 가지치기에 가로수 고사 속출

광주환경연합, 23곳 41그루 확인 양분 감소로 성장 막아 수명도 줄어 “지자체, 구체적 규제 마련해야”

광주도심의 가로수들이 지자체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과 기후 조절 역할을 하는 가로수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고 꼬집었다.

9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광주 가로수 가지치기 조사’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광주도심 23개 지점, 41그루의 가로수를 과도하게 가지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지난 3월 한달 동안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과도한 가지치기 사례(조사항목은 일시, 장소, 현장사진, 시민 의견)를 접수받았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일명 ‘닭발’, ‘주먹손’ 등 형태의 과도한 가지치기 사례가 적발됐다. 지자체별로 동구 6곳, 서구 5곳, 남구 3곳, 북구 5곳, 광산구 4곳 등 5개 지자체에서 모두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동구에서는 학동 중심사 입구역 버스 정류장 인근, 산수 오거리 인근, 전남여고 앞 등에서 발견됐다. 서구는 풍암동 한신아파트-금호동 호반 5차 아파트 앞, 남구는 백운교차로-백운우체국 앞 등에서 무분별한 가지치기 사례가 접수됐다. 북구에서는 운암동 한국아파트 앞-전남대 정문, 광산구는 광주우체국 앞-응암공원 맞은편 등에서 제보가 이어졌다.

제보를 한 시민들은 “나무들의 큰 가지가 잘려 나간 모습이 마치 팔이 잘려나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가로수는 우리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신아파트 인근 가로수가 작은 가지만 남기고 가지치기 돼 있다. (왼쪽)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정문 앞 가로수도 과도한 가지치기로 앙상하게 남아있다.



광주도심에 과도한 가지치기 사례가 적발됐다. (오른쪽) 광주도심에 과도한 가지치기 사례가 적발됐다. (오른쪽) 광주도심에 과도한 가지치기 사례가 적발됐다.

하고 때연을 감소시키는 고마운 존재인데 과도한 전정 작업으로 그 역할이 어려워 보인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도심의 가로수는 이산화탄소 억제와 산소 배출뿐 아니라 도로교통의 안전과 도심 환경 개선열섬 현상 완화 등의 역할을 한다.

반면 너무 자란 가로수의 경우 오히려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고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도심 시설물을 부수거나 전선을 건드리는 등 오히려 도심에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지치기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필수적인 가지치기가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가지치기는 가로수 수목의 형태를 파괴하고 잎의 성장을 늦춰 광합성을 저해시키고 양분의 축적을 감소시켜 오히려 가로수를 죽게 만든다. 굵은 가지가 과도하게 잘린 경우에는

세균 감염이 쉽게돼 부패가 일어나 나무 전체로 번져 서서히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수목관리학회의 수목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의 25% 이내에서 행할 것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과도한 가지치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지난해 3월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로수 관리 부처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개선방안에는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리지 않게 해 도시 내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25% 이상을 치면 에너지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수명도 줄어든다는 점에서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지나친

나무 가지치기가 도심경관 훼손과 도시 개발과정에서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제거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도심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가지치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민원도 과도한 가지치기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가로수가 상가 건물의 간판을 가리는 경우나 ‘햇볕을 가린다’는 민원이 지속되면 지자체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김중태 나무병원 원장은 “닭발 손 가지치기 등은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행위로, 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지자체가 구체적인 가로수 가지치기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가치만드쇼’ 발달장애인 대상 스마트팜 교육 참여자 모집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지역센터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쇼(所)’는 창업에 도전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스마트팜 창업 기초·기술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2022년 문을 연 광주 가치만드쇼는 업체류(프릴아이스 등) 재배 스마트팜 공간 및 창업보육실임대, 밀착형 창업 교육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창업보육실에는 교육을 이수한 발달장애인 가족 3팀이 입주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교육 대상 및 모집 인원은 광주시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가족 20팀(발달장애인 및 가족 각 1명씩 2인 1팀 구성, 총 40명)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이며 온라인 기초교육(8시간), 직무진단 및 설계(3시간), 부모상담(1시간), 스마트팜 이론 및 실습교육(16시간), 현장견학(8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15일까지 모집하며,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신청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교육시간 80% 이상 이수한 수료자는 창업 점포 지원,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보육실 입주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박진모 지역센터장은 “광주 가치만드쇼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습까지 밀착형 교육을 제공하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산구에너지센터 ‘빛의 나무를 심다’ 행사

기후위기 대응 시민 실천 촉진

광주시 광산구에너지센터와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하남주공1단지 놀이터에서 ‘건강하게 백세로, 빛의 나무를 심다’ 행사를 열었다.

제 54회 지구의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는 쓰레기를 줍는 ‘에너지 플로깅’을 비롯해 하남주공 1단지에 있는 ‘한마음 건강로’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 태양광 조명을 심었다.

박재만 광산구에너지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교도소, 식목일 기념 ‘청림 플로깅’ 캠페인

광주교도소가 올해 식목일을 기념해 교도소 일대 환경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광주교도소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5일 교도소 주변 일대에서 청림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림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개인건강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청림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청림의식을 고취하고 봄맞이 환경미화,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도형 광주교도소장은 “지역사회 친환경 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고 청림 문화 확산을 홍보하는 뜻깊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구, 진월동 스포츠타운에 7억원 들여 ‘수변공원’ 조성

광주시 남구가 진월동 스포츠타운에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남구는 남구다목적체육관과 진월복합운동장, 국제테니스 경기장 등이 모인 진월동에 사업비 7억 900만원을 투입해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수변공원이 완성되면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돼 진월동과 봉선동, 노대동 등 인근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수변공원은 7605㎡ 규모로, 주민들이 진월저수지 수변 위를 산책할 수 있도록 데크 산책로가 설치된다. 이밖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가리개 쉼터와 분수대도 조성된다.

남구 관계자는 “진월동 수변공원이 완성되면 주변 생활 체육시설이 순환형 산책로로 완전히 연결된다”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